



|   |  |  |  |
|---|--|--|--|
| <br><b>인천광역시</b>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| <br>시민이 행복한<br>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|
|   | 배포일자   | 2023년 9월 19일(화)<br>총 2매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담당 부서<br>노인정책과  | 담당자  | • 행복한인생팀장 전상운 ☎440-2836<br>• 담당자 김인걸 ☎440-2837 |  |
| 사진(이미지)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참고자료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  |
| 보도시점  |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|  |  |

## 노인일자리 ‘대상’ 받은 인천시, 우수 수행기관 격려

- 19일, ‘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 격려 간담회’ 개최 -  
 - 복지부,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18개 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9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8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, ‘2023년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 격려 간담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앞서 지난 18일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‘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’ 중 17개 시·도 종합평가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‘대상’을 수상했는데, 이날 간담회는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.

인천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오다가 이번에 역대 최초로 ‘대상’을 수상하게 됐다. 또 인천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 18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.

인천시는 지난해 1,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, 총 49,676명의 어르신에

계 일자리를 제공했는데, 이번 ‘대상’ 수상을 군·구 및 노인인력 개발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0개소 협력의 성과로 보고 있다.

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“이번 대상 수상의 영예는 각 수행기관과 자치단체가 합심해 이룬 성과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” 고 말했다. 이어 “노인일자리 최고 도시의 명성에 맞게 ‘어르신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’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고, 내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1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